

朝鮮人으로서 琉球王國의 陶祖가 된 張獻功과 그의 一家에 對하여

- 『張姓家譜』를 中心으로 -

洪 鍾 必*

목 차

- 緒 言
- I. 張獻功의 琉球王國에서의 生活
- II. 張獻功의 家譜
- III. 張獻功의 陶脈을 이어가는 淸波야(壹屋)
- 結 言

緒 言

작렬하는 태양과 쪽빛 바다, 그리고 산호초로 상징되는 오키나와(沖繩)가 현재는 日本의 1個縣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은 明治維新 이전까지만 하여도 아시아에 雄飛하였던 海上王國 琉球가 400여 년간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다.¹⁾ 큐슈(九州)와 타이완(台灣) 사이에 160餘個(면적 0.01km² 이상의 有人島 48개와 無人島 112개-平成 7년(1995) 日本 國勢調査)의 섬들로 이루어진 沖繩는 北은 日本 本土, 南은 東南아시아, 西는 中國 大陸과 연결되어 있고 日本의 남쪽 玄関이라는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琉球王國이었기에 그들은 東南아시아의 文物을 朝鮮·中國·日本 등지에 中繼 함으로써 富를 누렸던 海上王國으로 발전하였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곳이었다.²⁾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1994년 沖繩 本島의 우라소에구수쿠(浦添城)에서 발굴된 「高麗瓦」³⁾나 琉球王國의 수도였던 슈리조우(首里城)의 正殿에 걸려있

* 明知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겸 博物館長

1) 洪鍾必, 1996. 「琉球王國의 陶祖가 된 朝鮮人 張獻功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4, 129.

2) 洪鍾必, 1998. 1. 16. 「開會辭」 『朝鮮王朝와 琉球王朝와의 歷史와 文化 再照明』(明知大學校 開校50週年記念 第1回 沖繩(오키나와) 國際學術會議)

3) 大川清, 1962. 「琉球古瓦調査抄報」 『琉球政府文化財要覽』 參照; 浦添城 發掘調査報告書, 1994. 2. 1 「浦添의古瓦」 『廣報うらそえ』; 崔圭成, 「高麗기와 제작 기술의 琉球傳來」 『朝鮮王朝와 琉球王朝의 歷史와 文化再照明』 83-97.

있으며 지금은 沖繩縣立博物館의 玄關에 놓여있는 반고쿠신료노가네(萬國津梁之鐘)⁴⁾에 새겨진 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껏 위와 같은 사실들을 잘 모르고 沖繩하면 앞에서 말한대로 日本의 하나의 縣 아니면 태풍의 발상지나 미군기지를 연상 할 뿐이다.⁵⁾

그와 같은 琉球王國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가지게 된것은 高麗末의 禎王 元年(1389)⁶⁾이었고 그후 朝鮮王朝의 太祖이래 中宗 39년(1544)에 이르는 약 1세기 반 동안에만도 兩國은 257회⁷⁾의 交流를 가질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었다. 그 때문에 許均이 지은 최초의 한글소설 『洪吉童傳』의 주인공인 洪吉童이 세운 理想國家「栗島國」⁸⁾이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琉球王朝史를 日本史의 일부분으로만 취급함으로써 琉球史의 眞面目은 아직껏 그늘 속에 가리워져 있는 실정이다.

엄연히 말하여 沖繩에 있던 琉球王朝는 日本과는 別個의 獨立國家였고 獨自의인 역사·문화·인종·언어·관습 등을 가졌거늘 沖繩가 현재 日本의 1個縣 이라는 것만으로 琉球史를 日本史에 포함시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의 靑을 잘못 밟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 朝鮮王朝 立場에서 볼때 琉球王朝는 日本·女眞 등과 같이 交隣國家였고, 琉球王朝에서 볼때 朝鮮王朝는 先進國家였기 때문에 그들은 朝鮮王朝의 文化를 日本이나 中國의 文化보다 한 단계 높이 평가하여 이를 수용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때문에 지금도 沖繩의 文化나 관습 등은 우리와 닮은 점이 많고 특히, 朝鮮王朝實錄에는 琉球王朝관계의 기사가 많이 실려있어 琉球史의 寶庫라고 불리우며, 이같은 緣由로 琉球王朝를 소개하는 각종 文獻에는 對朝鮮關係史가 반드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로 沖繩(日本 포함)에서는 朝鮮·琉球 관계사 研究가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늘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琉球 관계 研究가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⁹⁾ 그나마 琉球王國의 陶祖 張獻功에 대한 研究는 단 1편밖에 없는 실

4) 1458年 琉球 第一 尙統王朝의 6代 尙泰久王(1454-1460)에 의하여 同王 5年(1458) 주조되어 王城 首里의 正殿에 걸려 있었고 현재는 沖繩縣立博物館 현관에 놓여있다. 「萬國津梁之鐘」은 높이 154.5cm, 口經 94cm, 무게 600kg로 當代의 琉球王朝가 「朝鮮·中國·日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三韓(朝鮮)의 文化를 높이 평가하여 이를 受容하였다」고 각인되어 있다.

5) 洪鍾倬, 1998. 「開會辭」, 『앞 책』(주 2) 3.

6) 『高麗史』 卷 137 列傳50 辛禕附昌條 ; 『高麗史節要』 恭愍王 元年 己巳 8月條

7) 有井智德, 1993. 「『李朝實錄』의 日本關係史料의 研究」 『靑丘學術論文集』 卷3, 327.

8) 洪鍾倬, 1996. 「앞 글」 (주 1) 130. ; _____, 1998. 「앞 글」 (주 2)

9)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진 琉球관계 研究로

閔丙河, 1966. 「麗末鮮初의 琉球國과의 關係」, 『國際文化』.

孫承喆, 1944. 「조·유(朝·琉)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 『朝鮮時代 韓日關係史 研究』.

孫承喆, 1992. 「對琉球交隣 體制의 構造와 性格」 『西巖趙恒來教授華甲記念 韓國史論叢』.

李元淳, 1994. 「朝鮮前期廷臣의 琉球認識」 『裴鍾茂總長退任記念史上論叢』.

李鎡銘, 1970. 「琉球·南蠻 關係」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崔在錫, 1982. 『韓國의 親族集團과 琉球의 親族集團』.

정이다.¹⁰⁾ 이에 本稿에서는 對琉球關係史 가운데 가장 관계가 깊은 朝鮮의 陶磁器가 琉球에 전달된 과정을 소개한 拙稿 「琉球王朝의 陶祖가 된 朝鮮人 張獻功에 대하여」을 좀더 보완하여 張獻功과 그의 一家에 대하여 再照明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琉球王朝의 陶祖가 된 朝鮮人 張獻功에 대하여」에서 취급한 南原城싸움과 日本으로 끌려간 張獻功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첫째 장에서는 張獻功의 琉球王國에서의 生活을, 둘째 장에서는 張獻功 一家의 家譜에 대하여 논하고, 끝으로 琉球王國에서 張獻功의 陶脈을 이어간 쓰보야(壹屋)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朝鮮陶磁器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沖繩 陶磁史를 밝히는데 일조를 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한 史料로는 張獻功家の 族譜인 『張姓家譜』를 基本史料로 택하였다.

끝으로 本稿에서 사용한 用語 및 문제가 되었던 점은 아래와 같다.

- (1) 琉球王國에는 일찍부터 固有的의 言語는 있었으나 文字가 없어 漢文이나 日本語를 借用하였으므로 모든 用語는 琉球式 발음으로 표기하되 ()안에 漢字나 日本語를 써넣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2) 모든 用語는 (1)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용어가 다시 반복될 경우 두 번째 부터는 漢字 혹은 日本語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3) 中國(明·淸)의 年號는 琉球王 몇년으로 바뀌서 표기하되 ()속에는 西紀를 표기하였다.

I. 張獻功의 琉球王國에서의 生活

1. 張獻功의 琉球王國에서의 生活

丁酉再亂 때의 南原城싸움(1597. 8. 13-16)은 당시 日本人 從軍 僧侶 게이넨(慶念)이 쓴 『朝鮮日記』¹¹⁾에서 서술하였듯이 「전쟁의 참상은 이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없고 지옥과 같았다」고 할 정도로 처절하였다. 이 싸움에서 잔악하기로 소문났던 사쓰마(薩摩) 번주(藩主) 시마쓰요시히로(島津義弘 1585-1619)에게 포로가 된 安·鄭·李·張·卞·朴·黃·林·

洪鍾倂, 1996. 「앞 글」 (주 1)

_____, 1997. 「오키나와(沖繩)의 舊國寶였던 朝鮮鐘(興海大寺鐘)에 대하여」, 『인문과학논총』 (명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17.

_____, 1998. 12. 21. 「韓國의 歷史家의 みた 沖繩」, 『變容する 日韓關係 -昨日·今日·明日-』(日·韓歷史教育フォーラム 日本 東京)

10) 洪鍾倂, 1996. 「앞 글」 (주 1).

11) 게이넨(慶念)은 豊後(現 大分縣) 安養寺 주지로 丁酉再亂 때 62세의 나이로 朝鮮에 와서 1597년 6월 24일에서 1598년 2월 7일까지 약 7개월 간에 걸쳐 종군하였는데 이것이 『朝鮮日記』이다. 내용은 和歌 333首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70여首는 壬辰·丁酉再亂때 倭軍의 잔악상을 그린 것으로 反戰從軍승려의 일기라 하겠다. (洪鍾倂, 1992. 5. 19. 「한민족魂 일본서 숨는다」, 『東亞日報』)

車·朱·盧·羅·燕·姜·何·陳·崔·丁 등의姓을 가진 朝鮮人 陶工 70여 명이 사쓰마(薩摩)로 잡혀갔다.¹²⁾ 그들중 朴平意의 42명은 1598년 겨울 사쓰마(薩摩)의 구시키노(串木野)를 거쳐 1599년 가고시마(鹿兒島) 城下에서 70리 떨어진 곳에 고향 南原의 城外와 닮은 황무지를 찾아내어 정착하게 되니 그 곳이 오늘날 사쓰마야키(薩摩燒)의 본고장이 된 나에시로가와(苗代川)이다.¹³⁾ 그들은 그 곳에서 1604년 3월부터 朝鮮式 가마(窯)를 만들고 朴平意¹⁴⁾를 중심으로 朝鮮式 陶磁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중 張과 安이라는姓을 가진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훗날 琉球王國으로 초대되어 간 張獻功(一六)과 安一官·安三官 등 3사람 이었다.¹⁵⁾

琉球王國의 尙豊王子에 의하여 琉球로 초빙되어간 朝鮮人 陶工 張獻功과 安一官·安三官 세 사람은 하나같이 苗代川에 두고온 朝鮮人 친구들이 그리워 尙豊王世子에게 薩摩의 苗代川으로 되돌아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安一官과 安三官은 薩摩로 돌아갔고 張獻功만 琉球에 남게 되었다. ¹⁶⁾ 張獻功이 琉球에 남게 된 것은 尙豊王世子가 張獻功에게 「琉球人들은 아직도 朝鮮式 가마(窯)를 만드는 법과 가마의 온도 조절 및 釉藥 바르는 기술이 서투르니 琉球에 남아서 지도하여 달라.」¹⁷⁾고 간청하였고 張獻功이 尙豊王世子와의 친분 때문에 차마 이같은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였다.¹⁸⁾ 이는 당시 琉球에서는 아라야치(荒燒)¹⁹⁾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張獻功이 목격하였기 때문이었다.

12) 1598-1722 『先年朝鮮より被召渡留帳』

13) 沈壽官·久光良城, 1986. 「日本のやきもの」 『薩摩』 49.

14) 朴平意(1558-1623). 일본 사쓰마야키(薩摩燒) 창시자. 본관과 젊었을 때의 행적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1598년 丁酉再亂시 南原城 싸움에서 사쓰마 번주(薩摩藩主) 시마쓰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붙잡혀 갔다. 朴平意 등 43명은 나에시로가와(苗代川-現鹿兒島縣東市來町)에 朝鮮人만의 집단촌을 이루었다. 그들은 藩主의 지시로 明治維新 이전까지만 해도 朝鮮옷을 입고 朝鮮말만 쓰며 결혼도 마을사람끼리만 함으로써 전통적인 朝鮮陶磁器를 생산했다. 이것이 薩摩燒의 시작이다. 朴平意를 중심으로 만들어 낸 사쓰마야키(薩摩燒)는 李參平의 아리타야키(有田燒)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陶磁器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47세때 마을동산에 玉山宮을 지어 놓고 주석이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다 건너 朝鮮을 향하여 高麗餅이라는 쿵이 섞인 시루떡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 뒤 손에 손을 잡고 춤추며 「靑丘永言」에 나오는 「오늘이 오늘이소서」를 부르며 떠나는 조국 朝鮮과 조상을 회상하였다. 「사쓰마도기창조박평의(薩摩陶器創造朴平意)기념비」라고 쓴 그의 묘비는 지금도 玉山宮터 앞 공동묘지 입구에 1미터 70센티 높이로 서 있다. (필자가 『東亞日報』 창간 73주년 기념 및 壬亂 400주년 기념 「한민족 魂 일본서 숨는다」를 취재하기 위하여 1992. 3. 10 현지 방문 조사)

15) 주 12와 같음.

16) 岡田喜一, 1972. 『薩摩』 陶器大系 16卷, 76.

17) 張獻功의 14대손 崎間麗進(당시 74세)이 1995년 2월 25일 밤 7시 30분 共同通信 那覇支局 사무실에서 필자에게 증언.

18) 위와 같음.

19) 아라야치(荒燒)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검은색을 띤 것으로 14C 부터 남방(타이)에서 술(泡盛)의 용기로 들여오면서 제작되었고 15C 후반 尙門王(1406-1421)이 琉球王國을 再統一 하여 제2 尙氏王統을 개창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생산지는 기나(喜名)·지바나(知花)·고가치(古我知)·즈보야(壹屋)였고 용도는 소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와모리(泡盛)의 양조에 사용할 술항아리(酒甕)와 그 밖에 물항아리(水甕), 식품 및 곡물의 보존항아리(甕), 뼈항아리(骨壺), 사발(鉢), 토병(土瓶) 등으로 쓰였다. (木崎甲子郎·目崎茂和, 1984. 『琉球の風水土』 114-115.

琉球王國에서 살기로 결심한 張獻功은 이름을 琉球式인 나카치레이신(仲地麗伸)으로 고치게 되었다.²⁰⁾ 당시 琉球王國의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張獻功과 교분이 두터웠던 尚豊王世子는 張獻功의 마음을 달래어 그를 그곳에서 계속 살게하기 위하여 평소 그가 연모하던 有夫女인 오로구(小祿)의 마기리(間切)²¹⁾ 安次嶺의 우쯔모(掟)²²⁾·바구미(親雲上)²³⁾의 딸 眞牛(眞牛 號는 妙香)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張獻功과 살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 남편을 잊지 못하는 眞牛는 남몰래 뒷동산 가마터(窯)에 올라가 그가 떠난 남녘의 小祿를 바라보며 첫사랑의 남편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라야부시(瓦屋節)라는 노래²⁴⁾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가라야부시(瓦屋節)라고 새겨진 빛바랜 비석이 나하(那覇)의 중심부 마키시(牧志)에 말없이 서있다. 이와 같은 瓦屋節의 주인공과 관계가 깊은 인물이 張獻功이라는 설은 『張獻功 家譜』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 증거로 첫째 『張姓家譜』에 의하면 琉球에 귀화한 張獻功은 「仲地麗伸」이라 이름을 고치고 小祿間切安次嶺掟親雲上의 딸 眞牛를 처로 삼아 長男 麗族과 次男 麗達을 두었다고 한다. 당시 琉球 家庭에서는 長男이 家系를 잇고 있었으나 유독 張獻功家에서만은 次男 麗達이 잇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14代孫 崎間麗進이 古老로 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張獻功은 眞牛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으나 이혼을 하고 眞牛는 長男 麗族을 데리고 고향 小祿間切로 돌아갔기 때문에 父인 張獻功을 次男 麗達이 모시고 家系를 잇고 있으며 張氏門中은 현재도 그 자손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²⁵⁾고 말하는 점이다.

이런 두가지 이유로 인하여 「張獻功이 瓦屋節의 주인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山里永吉은 『壹中天地』에서 「전설과 기록이 딱 맞는다」고 술회하고

20) 『張姓家譜』 3.

21) 마기리(間切)란 현재의 町·村에 해당하는 것으로 「間」은 섬(島)·처(處)라는 뜻이니 「間切」은 「處切」·「區切」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뀌어서 區切이 區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일찍이 아지(按司)가 영유하였었고 혈연적·지연적으로 일원화한 지역이 행정구획화 하게 된 것이다. (宮城榮昌, 1977. 『琉球의 歷史』 23. 136.)

22) 우쯔모(掟)란 모노이(物言い)라고도 하는데 근대초기까지 있었으며 按司가 지배하는 부락에 두었고 촌락의 중심인 니야나(根屋)의 장인 니츠유(根人-촌장)가 뽑혔다. 그는 농경민을 대표하였는데 임무는 촌락민의 통제와 조세의 징수였다. (宮城榮昌, 1977. 『앞 책』(주 21) 26,53,144.)

23) 베구미 또는 베구라고 부르는 親雲上이란 문자는 우야구무우이(ウヤクムウイ)혹은(大ヤクモイ)의 借字이다. 대야구모이란 大役의 뜻이니 옛부터 役職에 있던 사람을 대야구모이(大ヤクモイ)라 칭하였다. (宮城榮昌, 1992. 『沖繩의 歷史』 121.)

24) 비단구렁이(錦蛇)의 가죽으로 共鳴胴을 만든 蛇皮線の 絃을 튕기며 부르는 가라야부시(瓦屋節)는 琉球 고전음악의 악곡으로 지금도 널리 애창되고 있다. 같은 이름의 고전 무용도 있는데 「달맞이춤」이라고도 불리운다. 망향의 정경 혹은 달밤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우아한 곡(曲)인 가라야부시(瓦屋節)는

「기와 굽는 곳 언덕위에 올라
남녘을 바라보면
떠나온 고향은 보이지만
사모하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25) 1995년 2월 25일 崎間麗進이 필자에게 증언.

있다.²⁶⁾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자가 麗進씨에게 사실의 진위를 물었을때 그는 「그러한 말은 들은 바 없다.」고 부정하였으나 부정의 強度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느꼈다.²⁷⁾ 진위야 어떻든 이는 張獻功의 陶磁器 기술이 뛰어났음을 말하여 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하겠다.

尙豊王子는 薩摩에 억류되어 있을때 부터 茶를 좋아하였기에 그는 그곳에서 朝鮮人 陶工들이 구워낸 茶 그릇인 朝鮮磁器의 우아함에 매료되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張獻功등 3인의 朝鮮 陶工들을 초빙해간 것이었다. 張獻功의 陶磁器 기술을 누구보다 아낀 尙豊은 그에게 거처할 집과 窯까지 나하(那覇)의 이즈미자키(泉崎)에있는 와쿠다(湧田)에 하사하였다. 그때부터 張獻功의 窯를 중심으로 陶工村이 형성되었는데 오늘날의 沖繩縣廳²⁸⁾ 부근이 이에 해당하며 이곳을 당시는 湧田陶工村이라고 불리웠다. 그 뿐만 아니라 尙豊은 張獻功에게서 陶磁器 기술을 배워²⁹⁾ 직접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의 작품은 琉球王室의 家寶로 내려오다가 제 2차 대전중 가장 치열하였던 「沖繩戰鬪」에서³⁰⁾ 불타 없어졌고 현재는 沖繩美術全集에 그림으로만 남아 있다.

張獻功은 이역 땅 琉球에서 陶磁器 만드는데만 온 힘을 기울여 窯가 있는 那覇와 슈리(首里)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中部지방까지 출장을 가서³¹⁾ 琉球의 陶工들에게 「朝鮮의 선진 陶磁器 기술을 지도함으로써 琉球의 陶磁器界는 일대 산업혁명을 맞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도 琉球王國의 陶祖로 숭앙받고 있다.」³²⁾ 당시 張獻功이 거처하던 집터에는 현재 하바뷰호텔³³⁾이 들어서 있으나 한쪽 모퉁이에 옛 집터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1995년 3월 20일 필자가 그곳을 방문 하였을때에도 여기저기에서 陶磁器 파편이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³⁴⁾

26) 多和田眞助, 1987. 『門中風土記』 336.

27) 1995년 2월 25일 밤 7시 30분 沖繩의 那覇市內에 있는 共同通信 那覇支局에서 張獻功의 14代孫 崎間麗進이 필자와 인터뷰.

28) 현재의 沖繩縣廳에서 하바뷰(Hovaer View)호텔 사이.

29) 多和田眞助, 1987. 『앞 책』(주 26) 336.

30)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전개되었던(1945. 3. 2 - 6. 25.) 沖繩전투에서 沖繩 출신 군인·군속 28,228명, 민간인 150,000명 日本 本土 군인 65,908명, 美軍 12,000명이 전사하였다. 이 戰鬪에서 沖繩縣民 4명 가운데 1명이 전사한 전쟁이었고 민간인이 군인보다 많이 전사한 참혹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 日本 軍人 군속으로 나갔다가 전사한 조선인도 15,000-20,000여 명이나 되며 위안부도 1,000여 명이나 되었다. (嶋津與志, 1993. 『沖繩戰を考ふる』 100. ; 外間守善, 1994. 『沖繩の歴史と文化』 89 ; 1996. 『太平洋戦争戦争地図』(新人物往來社) 72-76. ; 安仁屋政昭, 1997. 『沖繩戦のはなし』 28.)

31) 『張姓家譜』, 『앞 책』(주 20) 2. ; 1995년 3월 19일 那覇市內의 壺屋에 있는 陶磁器店인 마지루(まじる)店主 니실네센다(西平宗季)가 필자에게 증언.

32) 위와 같음.

33) 沖繩戰이 끝난 1945년 미군의 휴양소로 지어진 이 호텔은 1972년 5월 沖繩가 일본에 귀속된 뒤에 昭和天皇이 묵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호텔 한 모퉁이의 시사(シ-サー: 沖繩 가상의 獅子像) 옆에 張獻功의 집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995. 2. 24. 필자가 張獻功의 14대손 崎間麗進의 안내로 현지 방문을 함)

그는 '南島'³⁵⁾라고 일컬어지는 琉球에서 陶磁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아라야치(荒燒)에 대신하여 釉藥바르는 기술과 朝鮮式 窯를 만드는 기술을 琉球王國의 陶工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1,200度 이상의 高溫에서 高品質의 朝鮮式 陶磁器인 杓야치(上燒)³⁶⁾를 만들도록 지도하였다. 이때 부터 上燒가 종래의 荒燒에 대신하여 琉球 도자기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張獻功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眞牛와 사이에 형제를 남기고 尙豊王(1621-1641)³⁷⁾ 18년(1638) 7월 12일 52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고 부인 眞牛도 2년 뒤인 1640년 3월 7일 小祿에서 세상을 떠났다.³⁸⁾

尙豊王의 신임이 두터웠던 張獻功이었기에 그는 죽은 뒤 尙豊王으로 부터 묘(墓)까지 하사 받았다.³⁹⁾ 그의 묘는 지금도 那覇市の 마키시(牧志)에 있는 통칭 나이쿠푸(ナイクフ)에 고색창연한 담장이 덩쿨로 쌓여 있었다. 그러나 다른 墓들과는 달리 그의 墓에는 담장이 없고 墓 앞에는 80cm 높이의 화강암으로 된 비석에 「張氏元祖一六仲地麗伸墓」⁴⁰⁾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 곳에 그가 잠들게 된 것은 임종하기전 평소 그를 신뢰하던 尙豊王이 「무슨 부탁이던 들어 줄 터이니 말하라.」라고 張獻功에게 말하자 그는 「王(尙豊)이 王都인 首里⁴¹⁾에서 那覇로 행차 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큰 길가인 牧志에 묻혀서 죽은 뒤에라도

34) 필자가 KBS의 위뢰를 받아 「홍길동 오키나와로 떠나다」를 촬영(1995년 5월 14일 저녁 일요스페셜 <오후 8:00-9:00>방영) 당시 沖繩縣 知事 大田昌秀와 인터뷰를 위하여 1995. 3. 24. 沖繩縣을 방문하였을 때 縣廳 차고를 만드느라고 張獻功의 가마터 발굴이 한창임을 목격함.

35) 日本 九州 南端의 鹿兒島에서 台灣에 이르는 무려 1,200Km 사이에 펼쳐진 섬들을 南島라고 한다. 이 南島는 考古學上 으로는 北部圈(種子島·屋久島·薩南諸島), 中部圈(奄美·沖繩諸島), 南部圈(宮古·八重山諸島)로 나눈다. (大城立裕外, 1995. 『沖繩縣立博物館』, 16.)

36) 杓야치(上燒)는 尙豊王의 초대를 받아 薩摩에서 琉球王國으로 건너간 朝鮮人 陶工 張獻功에 의하여 朝鮮式 陶磁器製造法이 1617년 이후 琉球王國에 전하여지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그렇게되니 이제까지의 아라야치(荒燒)라고 일컫는 無釉의 소박한 陶法인 南蠻燒였던 荒燒에 대신하여 釉藥을 칠한 上燒로 바뀌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上燒가 출현하여 琉球王國의 陶法은 획기적인 혁신을 하게되고 琉球王國의 陶磁器界는 이때부터 上燒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外間守善, 1994. 『앞 책』(주 30) 191 참조.)

37) 1620년 尙寧王(1589-1620)이 사망했을때 世子 尙恭이 9세 밖에 안되어 琉球王國이 薩摩에게 침공당한 뒤의 처리에 미흡하다 하여 諸臣의 추대로 尙恭의 生父 尙豊이 王으로 즉위하였다. 琉球王國에서 世子를 두는 것은 外國에 대하여 國內의 政治的 안정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世子가 반드시 王이 되지 못한 예가 있다. 尙眞·尙恭·尙文이 世子였으나 王이 되지 못한 예라 하겠다. (宮城朝光, 1995. 『琉球の歴史』 19. ; 『앞 글』(주 23) 4.)

38) 『張姓家譜』, 『앞 책』(주 20) 3.

39) 1995년 2월 25일 저녁 7시 30분 共同通信 那覇支局에서 張獻功의 14대손 崎間麗進이 필자에게 증언.

40) 張獻功의 14대손 崎間麗進의 안내를 받아 1995년 2월 25일과 3월 24일, 그리고 1997년 2월 11일 3차례 방문하여 필자가 직접 확인.

41) 슈리(首里)란 머리 다시 말하여 琉球王國의 國王이 머물던 곳을 의미한다. 400여 년에 걸친 海上王國 琉球의 王城이었던 首里城은 현재 那覇市の 首里에 소재하는 동서 약 400m, 남북 약 200m의 구수쿠(城)이다. 首里城은 태평양전쟁시 가장 치열했던 沖繩戰鬪 당시 日本軍 32軍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완전히 불타으나 1986년에 계획하고 1989년 11월 착공하여 1992년 11월 완성되어 『首里公園』으로 공개되고 있다. 구수쿠(城)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琉球王國 성립 이전인 11-14C에 걸쳐 쌓은 것으로

王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⁴²⁾는 유언을 王(尙豊)이 들어준 데 연유한다고 한다. 아울러 張獻功은 墓에 「담장을 만들지 말아서 죽어서도 王(尙豊)이 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⁴³⁾는 유언도 하였기 때문에 그의 墓 앞에는 현재도 담장이 없음을 필자가 직접 확인하였다.⁴⁴⁾

그와 같은 張獻功의 王에 대한 존경심을 가상히 여긴 尙豊王은 王都 首里에서 那覇로 행차할 때 지나는 「長虹提」 길가의 張獻功墓 앞에서 반드시 행렬을 멈추게 하고 경의를 표하며 풍악을 울리게 하여 죽은 張獻功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하니⁴⁵⁾ 「尙豊王과 張獻功과의 깊은 관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⁴⁶⁾고 하겠다.

II. 張獻功의 家譜⁴⁷⁾

張獻功은 丁酉再亂(1598)때 타의에 의하여 薩摩까지 끌려 갔고 당시 그 곳에 억류되어 있던 琉球王國의 王世子 尙豊의 초빙을 받아 琉球王國에 가서 琉球式인 나카치레이신(仲地麗伸)이란 이름을 갖고 살게되었다. 그러나 그는 「11세에 떠난 고국」⁴⁸⁾ 朝鮮이 그리워 자신

구수쿠(城)는 聖域과 작은 범위의 거성(居城)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던 곳을 말한다. 이 구수쿠(城)는 北의 菴美諸島에서 南의 八重山列島에 이르기 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그 수가 무려 130여 개소나 남아 있다. 구수쿠(城)는 아지(按司)라는 지방영주 또는 왕이 돌담을 쌓은 居城이라는 설도 있다. 특히, 14C 沖繩 本島에서 北山·中山·南山의 왕들이 패권 경쟁을 하던 三山시대를 전후하여 대규모로 축성되므로써 구수쿠(城)시대가 출현하였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26, 268. ; 沖繩歷史研究會, 1994 『沖繩の歷史散步』 11.)

42) 崎間麗進씨의 안내를 받아 1995년 2월 25일과 3월 24일 그리고 1997년 2월 11일 張獻功의 墓를 방문시 필자에게 증언.

43) 일반적으로 琉球의 무덤(龜甲墓)에는 반드시 담장이 있으나 張獻功의 무덤에는 담장이 없다. 이것은 그의 유언 때문이라고 張獻功의 무덤 앞에서 崎間麗進이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실제 沖繩에서는 오늘날까지 日本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가메고우하카(龜甲墓)를 거대하게 만들고 있고 거기에는 반듯이 무덤 앞에 담장이 있음을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다. 이 龜甲墓는 2차대전시 피난호(豪)로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墓의 형태가 어머니의 女體를 유추할 수 있다고 쉽게 考察할 수 있다.

44) 필자가 崎間麗進의 안내로 직접 張獻功 墓에 가서 확인. (1995.2. 25, 3. 24, 1997. 2. 11.)

45) 崎間麗進이 墓 앞에서 1995년 2월 25일과 3월 24일 그리고 1997년 2월 11일 필자에게 증언.

46) 위와 같음.

47) 가후(家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族譜와 같은 것으로 琉球王國의 士族이 가지고 있던 家系에 관한 기록으로 系圖라고도 한다. 이 가후(家譜)는 一族(門中)마다 특성의 姓을 따라 작성되었고 本家 및 分家에서도 작성되었는데 각 系祖 以下 各 사람들의 戶籍(世系)과 履歷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가후(家譜)가 편찬된 것은 尙貞왕이 同王 2年(1670) 家譜제출을 명하였고 同王21年(1689) 系凶座의 개설과 함께 諸士에게 系凶를 제출시키면서 시작 되었다. 一部는 系凶座에 보관하고 一部는 國王의 朱印을 찍어 각 가정에 수장케 하였다. 系凶座의 창설 이후 琉球社會는 게이모치(系持)라는 治者 계급과 被治者 계급(백성)의 완전한 구별이 생겼다. 治者 계급중 大名에는 王子·按司·親方이 있고 그 밑에 士階級으로 親雲上 이하 몇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졌다. (津波高志, 『沖繩의 門中과 家譜』 -韓國과의 比較를 위하여-, 『朝鮮王朝와 琉球王朝와의 歷史와 文化 再照明』; 田名眞之, 1990. 『身分制-士と農』 『新琉球史』 近世編(下) 43. ; 1992. 『沖繩の歷史』(주 23) 110.)

을 비롯한 후손들에게 반드시 朝鮮 이름을 갖도록 당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琉球式 이름을 갖더라도 첫자에는 반드시 고국 朝鮮을 상징하는 「麗」字⁴⁹⁾를 돌림자로 쓰도록 함으로써 朝鮮人の 후예임을 나타내도록 당부하였고 그의 유언은 14대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⁵⁰⁾ 그 때문에 分家등으로 姓이 바뀌어도 「麗」字 하나만 보면 지금도 張獻功의 자손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14代孫인 崎間麗進은 필자에게 증언 하였다.⁵¹⁾

앞에서 말한대로 尙豊王 18년(1638) 張獻功은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家系는 長男 麗族(1633-1702 朝鮮名 張揚聲 童名 眞蒲戶 號 安心)⁵²⁾이 아니라 次男 麗達(1631-1678 朝鮮名 張揚祖 童名 眞牛 號 嘉溪)⁵³⁾에 의하여 이어 졌다. 이는 長男 麗族이 眞次金(1633-1702)을 부인으로 맞아 외아들 麗康을 낳았으나, 그의 어머니 마우시(眞牛 ?-1640)가 張獻功과 이혼하자 그는 어머니를 따라 외가집인 小祿로 돌아간데 따른 것이었다. 長男 麗族의 자손들은 현재의 豊見城村瀬 高良家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墓도 瀬長에 있다. 이러한 내력이 同家家譜에 기록으로는 없으나 口傳되어 오고 있다.⁵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張獻功의 14代孫 崎間麗進은 필자에게 「本人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2代의 次男 麗達이 張獻功家를 이었으며 장남은 小祿로 갔고 그 宗家は 大阪에 살고 있다.»⁵⁵⁾고만 확인하여 주었다.

張獻功一家의 族譜인 『張姓家譜』에 의하면 張獻功家の 次男으로 家系를 이은 麗達⁵⁶⁾은 泉崎村主渡口親雲上の 딸 眞牛(?-1682)를 부인으로 맞아 외아들 麗興을 두었다. 그는 아버지 獻功을 답아서인지 陶瓷器 굽는 기술이 뛰어나 41세 때인 尙貞王 4년(1672) 2월 16일 琉球王國의 陶瓷器 총감독인 가와라세도(瓦勢頭)가 되었고 형 麗族이 黃冠을 받은것(1692)과 마찬가지로 그도 琉球로부터 黃冠⁵⁷⁾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4년이 지난 45세 때인 尙貞王 8년(1676) 4월 13일 那覇에서 10Km 떨어진 우라소에(浦添) 부근의 마기리(間切)인 사키마(崎

48) 『張姓家譜』, 『앞 책』 (주 20) 3.에 의하면 張獻功이 1638년에 52세를 일기로 죽었다고 하였으니 1598년 朝鮮에서 日本에 붙들려 갈 때 나이는 11세로 추정된다.

49) 1972년 8월 現在 那覇市議員인 도구찌레이고(渡口麗考) 自動車會社 중역인 사키마레이쇼(崎間麗昇)씨 등의 이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金東善, 1972. 8. 1. 「琉球의 韓國·韓國人」 『新東亞』 8월호.)

50) 崎間麗進이 자택인 沖繩縣 那覇市 楚邊 1-1-38에서 1995년 3월 19일 필자에게 張獻功家の 族譜인 嘉手納宗徳가 편찬한 『張姓家譜』 보여주면서 증언

51) 1995년 3월 19일 崎間麗進이 자택인 沖繩縣 那覇市 楚邊 1-1-38에서 필자에게 증언.

52) 위와 같음 ; 『張姓家譜』, 『앞 책』 (주 20) 3. 長男 麗族은 小祿間切同村住崎山掬親雲上の 딸 眞次金(1633-1702)을 부인으로 맞았고 尙貞王(1669-1709) 24년(1692) 2월 1일 黃冠을 제수 받았으며 同王 41년(1709) 12월 24일 76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베구미(べくみ 親雲上)를 생략해서 베구(べく-)라고도 하는데 옛부터 役職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품계로는 從7品에서 正3品까지의 칭호를 일컫는다. 그리고 黃冠이란 從7品 이상 正3品까지의 관리가 쓸 수 있는 색깔의 관을 말한다. (宮里朝光, 「近世 琉球の位階」 『球陽論叢』 140-141 ;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41.)

53) 위와 같음 ; 『張姓家譜』, 『앞 책』 (주 20) 4.

54) 多和田眞助, 1987. 『앞 책』 (주 26) 336.

55) 註 51과 같음.

56) 『張姓家譜』, 『앞 책』 (주 20) 4.

57) 위와 같음.

間)의 나지마(名島)⁵⁸⁾까지 하사받았다 그 때문에 이때부터 張獻功 門中⁵⁹⁾의 大宗家は 崎間라는 姓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는 尙貞王 10년(1678)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밖에 宮平·渡口·伊佐·宮城·知花·喜屋武·仲地家 등도 모두 大宗家인 崎間家(張獻功)에서 分家한 것이다.⁶⁰⁾ 張獻功의 門中 가운데 몇 대째 인지는 불분명하나 오노우와후야(王農大親)와도 혈연관계가 있고 오늘날까지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⁶¹⁾ 여기에 등장하는 王農大親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南島風土記』⁶²⁾에 의하면 「전하는 바 奧武山城岳등과 함께 王農大親이라고 하는 자의 所領이었는데 『旧記』에 의하면 尙淸과 같이 그의 집에 親臨하였을때 一女眞世仁金을 바쳐 부인으로 삼으니 그 배(腹)에서 讀谷山王子(尙洪德)를 낳았다. 훗날 王農大親이 아들 없이 죽어 관할하던 땅 전부를 讀谷家에 주었다.」⁶³⁾고 기술한 것이 보인다. 『旧記』는 『琉球國旧記』를 말하며 후사(嗣子)없이 죽어 王農大親 男系の 후예는 끊어졌으나 張獻功家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同門中の 분가인 宮平家(屋號與那原小)가 그 후예인것 같다」고⁶⁴⁾ 崎間麗進이 필자에게 증언하면서 그러나 「宮平家が 王農大親의 자손과 張門中과의 혈연관계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은 드나 어느 시대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다.」⁶⁵⁾고 부언하였다.

兩家の 관계를 말하여 주는 것으로 우마치의 기도(ウマチ-の拜み)를 예로 들 수 있다. 張門中에서는 5月에는 宮平家가, 6月에는 崎間家가 우마치의 기도(ウマチ-の拜み)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우마치(ウマチ-)라고 하는 것은 農作物의 풍요를 비는 農耕祭로서 2月の 우마치는 밀(麥)씨앗을 뿌릴때, 3月の 우마치는 밀의 수확을 거둘때 하며, 6月の 우마치는

58) 사도노치쿠돈(里之子親雲上)이 공로가 있을때 地頭나 나지마(名島)라는 명예직을 첨가받게 된다. 多和田眞助, 1987. 『앞 책』 (주 26) 141.

59) 우치난츄우(沖繩人)에 있어서 門中(Munchu)은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生理의 깊은 곳까지 얽혀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沖繩의 門中은 한국의 門中制度和 유사하다. 그 예로 그곳에서도 長男이 우선적으로 家系를 계승하고 수평적인 宗家를 중심으로 조상의 영혼을 공동으로 제사하는 男系的 혈연집단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 門中制度는 沖繩人들의 정신풍토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多和田眞助, 1987. 『앞 책』 (주 26) 8; 比嘉春潮, 1959. 『日本民俗大系』 卷12; 江上五夫, 1963. 『八重山群島の社會組織』 『岡正雄教授還曆記念論文集』 참조.)

60) 崎間麗進이 1995년 3월 19일 자택에서 필자에게 증언.

61) 多和田眞助, 1987. 『앞 책』 (주 26) 337.

62) 琉球學의 권위자인 東恩納寬惇이 지은 이 책은 1950년 3월에 東京의 沖繩財團과 沖繩에 있던 沖繩文化協會가 同時에 간행한 沖繩의 地名 辭典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總論·各論·索引으로 되어 있는데 1908년 吉田東悟가 지은 『大日本地名辭書』의 속편 가운데 琉球에 대한 旧稿를 골자로 새로 쓴 것이다. 總論은 各論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기술한 것으로 地名 概說, 土地의 丈量 과 그외에 행정구역의 변천, 지도 등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을 하였고 各論은 古都 首里, 縣都 那覇를 필두로 島尻郡, 中頭郡, 先島群島の 宮古郡 八重山郡과 道の 島이라 일컫는 奄美諸島の 순으로 서술하고 있어 沖繩를 이해하는데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63) 『앞 책』 (주 26) 337.

64) 崎間麗進이 1995. 3. 19. 자택에서 필자에게 증언

65) 위와 같음.

벼(稻)의 收穫祭를 말한다.⁶⁶⁾

三世인 麗康(1649-1709 朝鮮名 張繼統 童名 眞三郎 號 自性)은 張獻功과 眞牛 사이에 태어난 長男 麗族의 아들로 泉崎村主 新垣爾也의 딸 眞萬과 사이에 장남 麗規, 長女 眞牛를 두었다. 그도 祖父의 기술을 이어 받아 尙貞王 33년(1702) 12월 1일 琉球王國의 陶瓷器 굽는 책임자인 諸勢頭가 되었고 黃冠까지 받아 琉球의 陶瓷器 발전에 기여하다가 62세를 일기로 尙益王 元年(1710)에 세상을 떠났다.

張獻功의 같은三世로 그의 家系를 이어간 麗達의 長男 麗興(1655-1725 朝鮮名 張世英 童名 眞三戶 號 道隆)은 泉崎住安次嶺親雲上女 思戶(1657-1701)와 사이에 다섯 아들을 두었으니 이름을 麗直·麗本·麗著·麗盈·麗盛이라 하였다. 그는 尙貞王 13년(1682) 9월 12일에 士族으로써 筑登之座敷가 되었고 同王 35년(1704) 7월 25일에는 黃冠까지 받았다. 그리고 2년 뒤인 1706년 12월 초하루에는 壹勢頭가 되었으며 64세 때인 尙敬王 7년(1719) 10월 2일 壹大工, 이듬해인 1720년 從6品 勢頭座敷가 됨으로써 琉球王國에서 陶磁器家門의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그는 5년 뒤인 尙敬王 13년(1725) 12월 초 이튿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四世⁶⁷⁾ 麗直(1676-1735 朝鮮名 張文雄 童名 眞牛 號 心宗)은 泉崎村住城間筑登之親雲上の 딸 眞蒲(1684-1711)와 사이에 長男 麗保와 딸 思戶를 두었고 繼室 湯氏照喜納筑登之重好의 딸 眞奴金(1693-1723) 사이에 2男 麗作을 두었으며 또다른 繼室 泉崎村住島裝筑登之親雲上の 딸 眞牛(1700-1752)와의 사이에 次女 眞加戶를 두었으니 그는 팔자가 기구하여 세 번씩이나 장가를 갔던것 같다. 그는 아버지 麗興을 닮아 陶瓷器 굽는 기술이 빼어나 38세 때인 尙敬王 2년(1714) 2월 15일 父 麗興과 같이 筑登之座敷가 되고 2년 뒤인 40세 때(1716) 父와 같은 壹勢頭가 되었으며 黃冠까지 받고 從6品の 勢頭座敷 자리에 오름으로써 朝鮮 陶工의 후예답게 그 기술을 인정 받았다. 그리고 54세 때인 尙敬王 18년(1730) 7월 6일 尙敬王으로부터 琉球王國에서 張獻功이 上燒를 전과한 공로를 인정받아 新祿⁶⁸⁾을 추가로 하사받음으로써 그 노고를 인정받았고 5년 뒤인 尙敬王 23년(1735) 윤 4월 8일 59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五世 麗保(1701-? 朝鮮名 張宗德 童名 眞蒲戶)⁶⁹⁾는 四代 麗直과 眞蒲戶사이에 長男으로 태어나 眞和志間切與儀村住城間筑登之 딸 眞加戶樽(?-1705) 사이에 장남 麗許, 長女 眞龜, 次女 眞牛, 次男 麗寧, 三男 麗定, 四男 麗淸, 五男 麗正 등 5男 2女를 두었다. 그도 할아버지(麗興)나 아버지(麗直)을 닮아 陶瓷器 기술이 뛰어나 32세 때인 尙敬王 20년(1732) 6월 15

66) 外間守善, 1994. 『앞 책』 (주 30) 162-163.

67) 『張姓家譜』, 『앞 책』 (주 20) 5에는 麗直이三世로 되어 있으나 이는 四世의 誤字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同 4에 麗達의 長男이 麗興으로 되어 있고 同 5에 麗興의 長男이 麗直으로 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68) 『張姓家譜』, 『앞 책』 (주 20) 6.

69) 『張姓家譜』, 『앞 책』 (주 20) 6에 출생은 尙貞 33년(1701) 10월 17일로 나와 있으나 死亡 年月日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일 筑登之座數가 되고 10년 뒤 42세 때인 尙敬王 30년(1742) 黃冠을 받고 2년 뒤인 同王 32년(1744) 6월 3일 陶瓷器 책임자인 壹勢頭가 되었으며 尙敬王 35년(1747) 47세때 從6品の 勢頭座數가 되었다.

六世인 麗許(1722-1797 朝鮮名 張秉權 童名 眞蒲戶 號 義念)는 五世인 麗保와 眞蒲戶樽 사이에 5男 2女 중 長男으로 태어나 無系(百姓-필자)城間爾也의 딸 思戶(1721-?)사이에 長女 眞牛, 次女 眞鶴, 長男 麗道, 次男 麗休, 三男 麗元, 三女 眞加戶 등 3男 3女를 두었다. 그러나 세 아들이 모두 일찍 죽어 조카(麗敏의 아들) 麗禧를 양자로 맞았다. 그도 증조 할아버지(麗興), 할아버지(麗直), 아버지(麗保)를 닮아 陶瓷器 기술이 뛰어나 29세가 되던 尙敬王 39년(1751) 12월 1일 琉球 陶瓷器의 제 1인자인 壹大工이 되었고 筑登之座數도 되었다. 그리고 尙穆王 14년(1765)인 43세때인 同年 5월 21일 그는 張獻功 아래 琉球王國의 陶瓷器 界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士族⁷⁰⁾으로 승격되었다.⁷¹⁾ 그런 연유로 인하여 그는 『張姓家譜』의 序文을 써서 首里王府의 系圖座⁷²⁾에 바쳤고 이후로 張獻功의 자손들은 대대로 士族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麗許는 尙穆王 15년(1766) 12월 1일(44세)에 黃冠을 받았고 2년 뒤인 1768 12월 1일 從6品の 勢頭座數가 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同王 20년(1771) 5월 2일 그는 琉球王國의 朝貢國인 淸의 최대 무역선이면서 외교 사절단인 進貢歸唐船⁷³⁾을 맞기 위하여 慶良間島⁷⁴⁾의 座間味間切⁷⁵⁾에 갔다가 이듬해 2월 11일 돌아오는 등 외교와 무역 방면에도 큰 공을 세웠다. 이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그는 琉球王國의 陶工 책임자이면서도 尙穆王의 신임이 두터워 對淸外交에도 크게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

70) 琉球王國의 治者階級으로는 大名(王子, 按司, 親方)의 3계급으로 나뉘었고)가 있고 그 가운데 王子와 按司는 無品, 親方은 正1品에서 從3品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大名 계급 밑에 있는 士族 계급은 上層의 사도노시스지메(里之子節目)와 下層의 平士인 후구돈시스지메(筑登之節目)의 2계층으로 나뉜다. 節目이란 家의 姓통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신분제는 尙貞王 21년(1689) 系圖座를 창설하면서 제도화하였고 家譜를 가짐으로써 姓통을 인정 받을수 있게 되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40-141)

71) 張獻功 門中이 士族으로 승격된 것이 尙敬王 18년(1730)이라고 多和田眞助는 『門中風土記』 (주 26) 334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張姓家譜』 (주 20) 7에는 尙穆王 14년(1765)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72) 위와 같음.

73) 中國에 朝貢하는 進物을 貢物 혹은 方物이라 하였고 이를 운반하는 배를 進貢船, 사절을 進貢使라 하였다. 進貢船은 中國에서 支給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1385년 中山·山南王에게 배 한척씩을 하사하면서 부터였다. 이러한 朝貢船에 대하여 明때인 1435년 進貢船과 進貢使의 수를 정하였으니 船은 2척 船員은 100-150명으로 정한 것이 그예라 하겠다. 그러나 淸代에는 船員을 150-2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琉球로 돌아오는 進貢船을 맞는 것을 歸唐船이라 하였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58, 60-61, 123. 참조.)

74) 게라마(慶良間)제도란 20여 개의 섬을 총칭하며 首里王府의 옛 기록에는 13C 中葉 英祖王代에 구메미(久米)섬과 이헤야(伊平屋)와 함께 慶良間에서 入貢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慶良間인들이 역사상 활약하게 된 것은 1372년 사츠도왕(察度王)이 明과 朝貢貿易을 개시 할 때 船頭를 慶良間에서 모집하였기 때문이었다. 代代로 島사람들은 南海에서 활약하였고 그때문에 免租의 恩典을 받았다. 섬들이 進貢船의 順路여서 交易船의 到來를 알렸던 곳이기도 하다. (沖繩歷史研究會, 『앞 책』 (주 41) 80)

75) 옛날에는 渡嘉敷를 前慶良間 사마미(座間味)를 구시(後)慶良間이라 하였다. (위와 같음)

에 그는 46세 때인 尙穆王 17년(1768) 1월 22일 唐船送迎을 위하여 慶良間에 가서 임무를 마치고 閏 3월 10일 돌아왔다. 그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그는 이듬해 12월 1일 座敷가 되었으나 尙濫王 4년인 1798년 8월 13일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六世로 『張姓家譜』에 나와 있는 麗平(1741-1797 朝鮮名 張得岩 童名 眞蒲戶 號 德岩)은 尙敬王 29년(1741) 10월 9일 麗響와 眞牛사이에 長男으로 태어났고 부인인 胡氏石川 筑登之親雲上正並의 딸 眞蒲戶(?-1827)사이에 아들 麗方를 두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張氏門中の 家系는 張獻功의 次男 麗達에 의하여 이어졌고 尙貞王 8년(1676) 4월 13일부터 浦添間切崎間에 名島를 하사 받았고, 그 자손들이 張獻功의 家系를 계승하면서 三世 麗興, 四世 麗直, 五世 麗保, 六世 麗許까지 모두 崎間筑登之親雲上인데 麗平은 崎間筑登之親雲上이 아니라 宮平筑登之親雲上인 것으로⁷⁶⁾ 보아 張氏門中에서 갈라져 나간 宮平家로 부터 入養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피는 속이지 못하여 先祖들을 닮아 재주가 뛰어나 尙穆王 9년(1760) 약관 20세에 從9品の 筑登之座敷가 되었고 4년 뒤인 24세 때에는 선조들의 陶瓷器 기술이 태어나면서 부터 몸에 베어서인지 陶瓷器 책임자인 가와라세두(瓦勢頭)가 되었다. 그리고 27세 때인 尙穆王 16년(1767) 黃冠을 받고 이듬해에는 親見世大屋子⁷⁷⁾가, 5년 뒤인 尙穆王 22년(1773)에는 那覇筆者⁷⁸⁾로, 다시 2년 뒤에는 久米村筆者로까지 발탁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尙穆王 25년(1776)에는 大和橫目⁷⁹⁾, 尙穆王 33년(1784)에는 今歸仁⁸⁰⁾ 間切在番⁸¹⁾이 되었다. 48세 되던 해인 尙穆王 37년(1788)에 그는 眞和之間切檢者⁸²⁾가 되어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張姓家譜』에 「覺寫眞和之間切檢者 宮平筑登之親雲上이라고 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⁸³⁾ 「覺寫」⁸⁴⁾의 곳곳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대강

76) 『張姓家譜』, 『앞 책』 (주 20) 3-8.

77) 마기리(間切)를 행정단위로 琉球에서는 番所라고 하는 役所를 두었고 間切役人이 임명되었다. 間切役人에는 地頭代·슈리노오야구(首里大屋子)·우문치(大按)·하에치(南風按)·니신치(西按)의 상급 役人과 데고구(文字)와 그의 下級 役人으로 구성되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36.)

78) 尙穆王 9년(1760) 사이고우실(蔡宏謨-가사오야가다(我謝親方)가 발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구메무라(久米村)에 고(科)라고 하는 쇼오야구도요우시(諸役人登用試驗)가 행해진 이래 首里王府에서도 科에 의하여 諸役人이 등용되었다. 科에는 那覇筆子를 비롯하여 評定所筆者, 右筆, 漢字右筆, 系圖座筆者 등이 있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27)

79) 薩摩가 琉球를 侵攻한 후인 尙豐王 8년(1628)에서 尙賢王 4년(1644) 사이에 琉球人과 駐在員을 감독하기 위하여 두었던 官吏.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08)

80) 沖繩 本島 本部半島 北部에 있던 三山時代 北山王의 居城이었으나 1416년 北山 멸망후 北山監守의 居城이 되었다가 1609년 薩摩 침략 이후인 尙質王 17년(1665) 監守가 首里로 철수한 뒤 廢城이 되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271.)

81) 薩摩가 1609년 이후 琉球 현지의 통치기관으로 那覇에 가이야(仮屋)를 두었고 그곳에 在番奉行을 임명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在番란 마기리(間切)의 관리를 일컫는다고 하겠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08 참조.)

82) 檢者란 間切中の 公事와 村의 上納物品 등을 취급하는 間切行政의 직접 감독기관을 말하며 中央에서 파견되었다. 1673년에 宮古島 八重山까지 檢者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琉球의 마지막 왕인 尙泰王 24년(1872)까지 있었다. (『羽地仕置』 참조)

을 살펴보면 「麗平은 安謝村이 피폐하였으나 諸上納物이 해마다 늘어나게 하였고 그 외에 惣地頭⁸⁵⁾大美御殿大親의 田地奉行의 임무도 잘 수행하였다.」⁸⁶⁾는 것이다. 이어서 50세때인 尙穆王 39년(1790) 9월 10일 頭號船脇筆者在 되고 同年 12월 9일에는 王으로부터 茶飯을 下賜, 다음해 5월 16일에는 太平布 一疋 烟草 二十疋 까지 聖上으로부터 下賜 받았다. 이어서 8월 14일 那覇開船에 참가하고는 淸으로 향하여 9월 1일 福州館驛에 도착하여 公務를 수행하고 이듬해 7월 2일 귀국하는 등 琉球王國의 外交와 交易에 기여한 바가 컸다.⁸⁷⁾ 그는 이러한 공로와 타고난 영특함을 인정 받아 51세 때인 尙穆王 40년(1791) 從6品の 勢頭座數가 되었고 이듬해 三司官⁸⁸⁾으로 부터 淸에 다녀오면서 업무수행을 충실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까지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御藏大屋子가 됨으로써 士族으로서 從4品인 座數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다시 大和橫目이 되었다. 尙穆王이 죽고 尙溫王이 즉위한 元年(1795) 7월 12일 55세가 된 麗平은 那覇總橫目이 되어 琉球王國의 儉約의 法을 통하여 제반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2년 뒤인 尙溫王 3년(1797) 12월 20일 57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같은 六世인 麗敏(1738-1804 朝鮮名 張迪忠 童名 思武太 號 常勇)은 麗修와 鄭氏上原通親雲上賀省의 딸 眞蒲戶(1741-1793)와의 사이에 長男 麗坦과 次男 麗宴을 두었다. 그리고 繼室 頂氏砂邊筑登之親雲上松房의 딸 眞加戶와 사이에는 三男 麗喜, 長女 眞鶴, 次女 眞牛 등 3男 2女를 두었다. 그는 18세 되던 尙穆王 5년(1756)에는 筑登之座數가 되었고 34세 되던 同王 21년 陶瓷器 책임자인 壹勢頭가 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36세때 聖上(尙穆)으로부터 上布 一疋을 下賜 받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35세 때에 琉球假屋⁸⁹⁾을 개편할 때 毛氏田名親雲上盛憲을 수행시 筆者로서 公務를 태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薩摩에 上納하는 銀을 擔當 받아⁹⁰⁾ 尙穆王으로부터 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 공로로 37세 되던 尙穆王 24년(1775) 그는 黃冠을 제수받고 13년 뒤인 尙穆王 37년(1788) 50세 되던 해 御

83) 『張姓家譜』, 『앞 책』 (주 20) 9.

84) 「覺寫」가 아니라 覺이 아니면 「覺書」의 誤字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覺」은 신임 총애를 말하며 「覺書」는 메모·비망록을 말하는 것으로 尙穆王(1752-1794)이 檢者로서 업무수행을 충실히 행한데 대하여 麗平을 신임하는 뜻으로 준것이니 「覺書」가 아닌가 한다.

85) 地頭에는 按司地頭, 總地頭가 있으며 一間切을 영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制度 完成後 領有 소유 형태는 按司地頭 38개소, 總地頭 41개소, 脇地頭 292개소에 이르니 이때 間切은 離島를 포함하여 35, 村은 595였으니 거의 모든 間切과 반수의 村이 地頭の 소유였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40.)

86) 『張姓家譜』, 『앞 책』 (주 20) 9.

87) 위와 같음.

88) 治者 계급 가운데에는 王子·按司·親方이 있었다. 品階로는 正1品에서 從2品까지로 이를 親方라 하였고 그들이 취임할 수 있는 三司官은 士族이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40.)

89) 薩摩가 1609년 琉球를 侵攻한 뒤에 琉球 현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那覇에 가이야(仮屋)를 설치하였으며 그곳에는 任期 3년의 在番奉行이 임명되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108.)

90) 『張姓家譜』, 『앞 책』 (주 20) 10-11.

用意御藏大屋子가 되었으며 6년 뒤인 尙穆王 43년(1794) 12월 1일 勘定大屋子가 되고 從6品の 勢頭座敷가 되었다. 세상이 바뀌어 尙穆王이 승하하고 尙溫王(1795-1802)이 즉위한 이듬해 58세가 되던 同王 2년(1796) 12월 1일 그는 久米惣與頭가 되고 이듬해 6월 16일 那覇總橫目이 되었으며 麗平과 마찬가지로 琉球王國의 儉約法을 시행키 위하여 노력하였다. 4년 뒤 62세가 된 그는 尙溫王 6년(1800) 久米村惣與頭가 되었고 2년 뒤에는 淸에서 파견하는 冊封(天)使⁹¹⁾를 맞는 임무를 띄고 大和橫目이 되어 同年 5월 27일 부터 10월 28일 까지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尙溫王 8년(1802)인 64세에 大和橫目久米山(村의 諱字-필자)勤番이 되어 5월 17일 부터 24일 까지 那覇川을 開船하고 이듬해 4월 18일 무사히 돌아와 6월 1일 那覇惣與頭가 되었으며 이듬해 8월 3일 66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七世는 長孫 麗許의 세 아들(麗道·麗休·麗元)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는 麗敏의 아들(조카) 麗喜를 양자로 들임으로써 계승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麗方, 또 다른 한편으로는 麗坦과 麗宴에 의해 家系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 七世 4인의 행적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⁹²⁾

八世는 麗坦의 아들 麗布(1792-1850 朝鮮名 張士美 童名 樽金 號 富山)에 의해 계승되었다. 麗布의 부인은 愼氏東恩納筑登之親雲上寬房의 딸 思戶(1793-1856)이고 長女 眞加戶, 長男 麗謀, 次女 眞鶴, 三女 眞吳勢, 次男 麗教 등 2男 3女를 두었다. 그는 尙育王(1828-1847) 10년(1837) 45세 되던 해의 12월 1일 御船手筆者가 되었다. 이듬해 黃冠을 받았고 다시 1년 뒤인 12월 1일 檢者가 되어 3년간 근무하였으며 49세 되던 尙育王 14년(1741) 12월 1일 從6品の 勢頭座敷가 되었다. 또한 이듬해 那覇惣與頭가 되었고 4년뒤 54세가 되던 尙育王 19년(1746) 百浦添御普請就成의 大慶에 의해 從4品の 座敷의 자리에게 올랐으나 尙泰王 3년(1850) 12월 6일 59세로 수를 다하였다.

또다른 八世 麗椿(1800-1856 朝鮮名 張元立 童名 思龜 號 溫心)은 張士弘宮平筑登之麗方과 摩氏謝花筑登之良意의 딸 眞蒲戶와 사이에 張氏 分家인 宮平家에서 태어나 崎間家로 入養한 것으로 보인다. 麗椿이름 밑에 崎間筑登之가 아닌 宮平筑登之⁹³⁾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父가 앞에서 六世 麗平이 宮平筑登之親雲上이라 한 것과 麗方이라고 한 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李氏喜瀨筑登之親雲上喜保의 딸 思戶와 사이에 長男 麗充과 次男 麗佳 형제를 두었고 24세가 되던 尙灑王 10년(1824) 12월 1일 筑登之座敷가 되었으며 47세 때인 尙育王 20년(1847) 12월 1일 黃冠을 제수 받았다. 그는 尙泰王 8년(1855) 조상 대대로

91) 中國은 明이래 淸代까지 주변국가들로부터 朝貢을 받는 대신 그 나라의 國王에게 「封爾爲何國何王」이라는 勅書를 내리는 것을 冊封이라 하였고, 그때 보내는 使節을 冊封使라 하였다. 琉球에 대하여는 1404년 察度의 아들 武寧을 中山王으로 封하기 위하여 明의 成祖가 行人時中을 파견한 것이 시작이었고, 同年 山南王 承察度의 후계자 야부소(汪應祖)에 대하여서도 使者가 파견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琉球 최후의 國王 尙泰때인 1866년까지 계속되었다. (宮城榮昌, 1977. 『앞 책』 (주 21) 58-59.)

92) 『張姓家譜』, 『앞 책』 (주 20) 1-14.

93) 『張姓家譜』, 『앞 책』 (주 20) 12.

물러오며 기술을 연마하였던 陶磁器 관계의 瓦奉行所筆者가 되었으나 그 이듬해 尙泰王 9년(1856)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八世 麗輔(1810-1863 朝鮮名 張承福 童名 思龜 號 頓心)는 麗喜의 아들로서 부인은 薛氏渡慶次筑登之親雲上賀廷의 딸 眞武樽로서 그와 사이에서 長女 眞龜를 낳았고 繼室 用氏仲村渠筑登之親雲上致安의 딸 思戶와 사이에는 長男 麗揚과 次男 麗能을 두었다. 그는 尙育王 7년(1834)인 24세 때 筑登之座敷가 되었고 尙泰王 14년(1861) 51세때 瓦奉行所筆者가 되었으나 2년 뒤인(53세) 尙泰王 16년(1863) 3월 2일 생을 마감하였다.

九世 麗謹(1818-1892 朝鮮名 張用節 童名 松金)은 八世 麗布와 愼氏東思納筑登之親雲上寬方の 딸 思戶와 사이에 태어났고 慶氏高江州筑登之春喜의 딸 眞蒲戶(1817- 1847) 사이에 長男 麗邦과 次男 麗位를 두었으나 30才에 요절하자 繼室 摩氏上里筑登之親雲上良備의 딸 眞蒲戶와 사이에 三男 麗善, 四男 麗隆, 五男 麗章을 두었으며 妾 浦添間切城間村百姓加那島裝의 딸 於戶와 사이에 六男 麗華를 두었다. 그는 24세인 尙育王 14년(1841) 筑登之座敷, 7년 뒤인 31세 때인 尙泰王 元年(1848) 黃冠을 제수 받았다. 그리고 41세 때인 尙泰王 11년(1858) 仕上世座大屋子가 되었으며 尙泰王 16년(1863)인 46세 때에는 久米村學校의 主取가 되어 教育事業에 매진하였다. 尙泰王 24년(1871) 54세 때는 從6品の 勢頭座敷, 4년 뒤인 尙泰王 28년(1875) 58세때 中城御殿易籍改造에 공을 세워 從4品이 되었다. 그는 從4品の 士族으로써, 더구나 琉球王國의 陶祖 張獻功의 후예로 家業인 陶業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1860년 대인 明治 초기부터 陶磁器業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이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때문에 살던 집까지 파는 등 피나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 陶業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써 1617년 이래 張獻功이 琉球에 내린 家業(陶業)은 250여 년만에 脈이 끊어지고⁹⁴⁾ 다른 琉球人들에 의해 계승·발전 시키게 되었다.

Ⅲ. 張獻功의 陶脈을 이어가는 쯔보야(壹屋)

琉球王國의 陶磁器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쓰마(薩摩)가 1609년 琉球를 侵攻한 뒤 당시 尙豐王子가 尙寧王과 같이 薩摩에 2년간 억류되어 있는 동안 苗代川에서 朝鮮 出身 陶工들이 아름다운 朝鮮式 陶磁器를 생산하는 것을 보고 琉球王國에서 도공을 초빙해 가면서 부터였다. 尙豐王子가 薩摩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당시 藝術 애호가였던 그는 실용적인 陶磁器 생산 보다는 茶器를 굽게하기 위하여 張獻功과 安一官, 安三官 3사람을 琉球로 초빙해 간 것이다.⁹⁵⁾ 이때 琉球에 남은 張獻功에 의해 생산된 上燒가 지금까지의 荒燒에 대신하여 琉球王國의 陶磁器 산업의 주류를 이루게 되므로써 琉

94) 1995년 3월 19일 崎間麗進이 沖繩縣 那覇市 楚邊 1-1-38자택에서 필자에게 증언.

95) 『沖繩の歴史』, 1992. 『앞 책』 (주 23) 135.

球 陶磁器製造는 일대 산업혁명을 맞게 되었다.⁹⁶⁾

尙豊王子의 간청에 의하여 琉球王國으로 초빙되어 그곳에 살게된 張獻功은 尙豊王子가 하사한 집에 살면서 송림이 우거진 泉崎의 湧田에 朝鮮式 등가마(窯)를 만들어 놓고 琉球王國 최초로 1,230도가 되는 高溫에서 朝鮮式 陶磁器를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尙豊王子를 비롯하여 琉球王國의 각지에 있는 陶工들에게 조야치(上燒)의 기술을 지도 함으로써 명실상 부하게 琉球王國의 陶祖가 되었음은 이미 말한 바 있다. 張獻功은 52세를 일기로 湧田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나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上燒의 기술은 발전되었고 그 후손들은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士族으로 대우를 받으며 살아 갔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40여 년이 지난 尙貞王 14년 (1682) 그러니까 三世인 麗康(張繼統), 麗興(張世英)때 琉球王國에서는 陶業政策上 중부의 미사토의 지바나(美里知花)와 슈리(首里)의 다카라구치(寶口), 나하(那覇)의 와키다(湧田)에 있던 가마들을 나하(那覇) 마키시촌(牧志村)의 쓰보야(壹屋)에 모았다. 다시 말하면 조야치(上燒)와 아라야치(荒燒)를 한 곳에 모아 쓰보야가마(壹屋窯)를 만든 것이었다. 이는 당시 國殿을 위시하여 기타 건물들에 기와가 필요하여, 다시 말하여 기와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⁹⁷⁾ 당시 지바나(知花)는 주요 소비처인 王都 슈리(首里)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와키다(湧田)는 좋은 흙과 물이 부족하였으며, 다카라구치(寶口)는 양질의 흙과 가마(窯)에 들어갈 장작의 입수가 어려워 위에 든 세 곳의 가마(窯)들을 모두 쓰보야(壹屋)로 옮긴 것이었다. 왜냐하면 壹屋는 양질의 흙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둘러 쌓여 있었고 아울러 물도 풍부한데다가 최대의 소비지인 슈리(首里)와도 멀지 않았고 소젠지(崇元寺) 부근에 작은 港口까지 있어 沖繩 본섬의 북부에서 운반되는 특수한 흙과 장작의 조달이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⁹⁸⁾

이때부터 壹屋의 동쪽에는 上燒의 陶工들이 아가리누가마(東窯)를, 남쪽에는 荒燒의 陶工들이 모여 회누가마(南窯)를 만들었다. 이窯들은 하나 같이 琉球왕이 하사하였기 때문에 「御拜領窯」라고 불렀으며 「琉球處分」에 의하여 琉球王國이 멸망되어 日本의 1個縣(沖繩縣)으로 되기 전까지는 琉球王室이 관리하였다. 그 때문에 王室에서 필요한 陶磁器는 모두 이곳에서 생산되었고 張獻功의 자손들은 9세손인 麗謹(張用節)때 즉, 明治 초기까지 그곳 壹屋

96) 「張獻功의 琉球 陶磁器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의 기술은 매우 선진적이었으나가요. 예를 들면 고온에서 陶磁器를 굽는 기술이라던가, 유약을 바르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朝鮮출신 張獻功의 陶磁器 기술을 계승하여 만들고 있죠. 당시 琉球의 陶磁器 기술은 매우 미미하여 유약을 바르는 기술도 몰랐고 온도를 조절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陶磁器를 만들줄 몰랐죠. 그때 張獻功이 琉球王國에 초빙되어 와서 琉球王國의 陶磁器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일대 산업혁명이었죠.」라고 1995년 2월 20일 KBS의 「洪吉童 沖繩으로 떠나다」의 촬영차 沖繩 陶磁器의 본고장 쓰보야(壹屋)를 방문하였을때 마지루(まじる)商店 店主 니실네센다(西平宗季)가 필자에게 증언.

97) 嘉手納宗徳, 1987. 『琉球史の再考察』 366.

98) 洪鍾倜, 1996. 「앞 글」 (주 1) 156.

에서 단순한 陶工이 아니라 琉球王室 경영의 陶工村에서 지도자로 혹은 감독자로서 지도적인 입장에서 陶業에 종사하면서 琉球王國의 陶磁器界를 이끌어 갔다.⁹⁹⁾ 그러나 明治維新 이후 陶磁器만 생산해서는 생활이 안되었기에 9세 이후는 陶磁器業에서 손을 떼게되었고 더구나 1879년 琉球王國이 日本의 沖繩縣으로 격하되면서 壹屋의 「御拜領窯」도 個人 소유가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그 위에다가 처참을 극하였던 1945년의 沖繩戰鬪에서 壹屋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거의 불타버렸으나 살아남은 60여 명의 陶工들에 의하여 1946년 壹屋거리는 戰前의 상태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沖繩의 관광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야치몽(燒物)거리가 되었다.

琉球王國의 陶祖 張獻功이 세상을 떠난지 어언 3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南島 琉球王國에 뿌린 朝鮮式 陶磁器 기술은 沖繩의 모든 섬들에 퍼져 현재 100여 곳의窯에서 陶磁器가 생산되고 있다. 오늘날 沖繩의 陶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미탄(讀谷)의 긴조지로(金城次郎:1912-)이다. 그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의 작품의 특징은 큰 접시에 물고기·새우 등을 대담하게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하겠다.¹⁰⁰⁾

陶祖 張獻功은 갔고 그 후손들도 陶磁器와의 인연은 끊어졌으나 그가 남긴 업적이 매우 커서 오늘날까지도 沖繩人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때문에 沖繩 3대 명절의 하나인 세이메이사이(清明祭)¹⁰¹⁾가 되면 張獻功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門中이 아닌 沖繩 陶工들까지 那覇의 牧志에 있는 담장이 넉넉 우거진 그의 묘앞에 모여서 음식을 차려 놓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는 張獻功의 후손들은 앞줄에 서서(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뒤에 서서) 張獻功으로부터 陶器 만드는 법을 지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韓國 쪽을 향하여 朝鮮式으로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며 3번 절을 하고는¹⁰²⁾ 손으로 韓國쪽을 가르키면서 「이치로구(張獻功) 당신의 자손들입니다. 오늘이 清明祭라서 모두 모였습니다. 우선 一六(張獻功)의 조상이 계신 朝鮮의 조상들에게 물건을 바치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물건을 바칩니다.¹⁰³⁾」라고 말한다고 張獻功의 14代孫인 崎間麗進(당시 74세)이 묘 앞에서 필자에게 실제의 모습을 재현해 주었다.

그는 필자에게 「14대 할아버지 張獻功이 朝鮮에서 왔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할아버지 고향

99) 嘉手納宗徳, 1987. 『앞 책』 (주 97) 368. ; 『張姓家譜』, 『앞 책』 (주 20) .13.

100) 洪鍾必, 1996. 「앞 글」 (주 1) 156.

101) 매년 양력 4월 5일이나 6일은 沖繩人들이 조상을 찾아가는 특수한 날인 시메이사이(清明祭)이다. 清明祭때는 음력 7월 7일의 다바나(七夕)와 故人的 설이라고 하는 죽구구너치(1월 16일)와 함께 흠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家族墓 앞에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 날이다.(外間安善, 1994. 『沖繩の歴史と文化』(주 30) 162-163. ; 沖繩, 1992. 『keys to okinawa culture』 32.)

102) 沖繩人들이나 日本人들은 보통 합장하고 예를 표하나 張獻功의 墓 앞에서는 지금도 朝鮮時代 하던 것과 똑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3拜를 한다. (1995년 3월 19일 崎間麗進이 張獻功의 묘 앞에서 필자에게 실제 모습 재현)

103) 崎間麗進이 1995년 3월 19일 張獻功의 墓 앞에서 필자에게 증언

인 韓國에 가고 싶어서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의 苗代川에 있는 14대 沈壽官을 두 번씩이나 찾아갔으나¹⁰⁴⁾, 아직껏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안타깝다고 애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필자가 「왜 韓國에 가서 할아버지 묘를 찾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할아버지가 韓國의 어느 곳 출신인지 알고나서 가겠다.」고 하면서 那覇 주재 韓國領事에게 부탁하였으나 아직껏 소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張獻功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기 위하여 20여년 가까이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할때, 필자는 그의 얼굴에서 350여 년전 張獻功이 고국을 그리던 생각을 그의 얼굴에 포개어 생각하면서 그의 조상을 꼭 찾아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崎間麗進에게 「선생님은 朝鮮에서 강제로 日本에 끌려온 陶工의 후예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까?」하고 거북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는 자신에 찬 어조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張獻功은 琉球王國에 오셔서 이 곳의 陶磁器를 개혁하여 더욱 더 좋은 陶磁器를 만들었고 나는 그 후예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는 커녕 존경을 받고있어요¹⁰⁵⁾」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이곳 沖繩의 陶工들은 지금도 너나없이 이 墓앞에 와서 정중히 절을 올리고 간담니다. 나는 陶祖 張獻功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답니다.¹⁰⁶⁾」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74세의 노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넘쳐보였었다.

그는 현재 張獻功의 陶脈을 이어 가고 있지는 않으나 太平洋戰爭 전에는 琉球新聞社에 근무하였고, 전후 건설업을 하다가 현재는 那覇市 文化財調査審議委員 및 沖繩藝能史研究會 長 등 공직만 6개나 가지고 찬란하였던 琉球王國의 歷史를 沖繩人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필자에게 말하였다.¹⁰⁷⁾

1995년 3월 20일 崎間麗進의 집으로 찾아간 필자에게 그는 那覇市로부터 沖繩 文化 振興에 공적을 남겨 문화상을 받았다고 상장을 보여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그는 那覇市 文化功勞賞 등 수 많은 상장까지도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필자에게 자신은 「3남 1녀를 두었고 손자 3명에 손녀가 3명인데 두 아들들은 회사원이고 딸은 교원.」이라고 말하면서 「아들 딸은 말할 것도 없고 손자 손녀의 이름의 첫 머리에 韓國人임을 나타내는 「麗」자를 쓰고 있다.」고 말하며 「張獻功 할아버지가 日本에 불들려 오기 전의 고향을 찾은 뒤에 韓國을 방문하는 것이 죽기 전의 소망이다.」¹⁰⁸⁾라고 말할 때 그의 눈에는 가벼운 이슬이 맺혀있었다.

104) 위와 같음.

105) 崎間麗進이 1995년 3월 9일 張獻功의 墓 앞에서 필자에게 증언

106) 1995년 3월 19일 張獻功의 墓 앞에서 崎間麗進가 필자에게 증언

107) 1995년 3월 19일 張獻功의 墓 앞에서 14대손 崎間麗進가 필자에게 증언

108) 1995년 3월 20일 沖繩縣 那覇市 楚邊 1-1-38에 있는 崎間麗進의 자택을 방문하였을 때 14대孫인 崎間麗進이 필자에게 증언

結 言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정리함으로써 結言에 대신하고자 한다. 야키모노(燒物) 전쟁이라고도 일컫는 倭亂때 朝鮮에 쳐들어온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¹⁰⁹ 휘하의 諸將들은 3-5만 명의 죄없는 朝鮮人들을 포로라는 이름으로 日本으로 강제로 끌고 갔고¹¹⁰ 그 가운데 朝鮮의 많은 陶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절한 전투의 하나였던 南原城 싸움에서 薩摩의 藩主 島津義弘에게 붙잡혀 간 陶工 70여 명은 그에 의하여 1598년 겨울 그의 領地로 끌려 갔다. 그들은 朴平意를 중심으로 이듬해 부터 串木野에서 朝鮮式 陶磁器를 만들던중 언어가 통하지 않아 現地人들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자¹¹¹ 朴平意를 따라 內陸을 향하여 東으로 걸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鹿兒島城下에서 70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떠난 故郷 南原城外와 닮은 곳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니 그곳이 朝鮮人 陶工村 苗代川이었다. 그들은 그 곳에서 1604년 부터 朝鮮式窯를 만들고는 朝鮮式 陶磁器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1605년 부터는 떠난 朝鮮이 그리워 마을 뒷산에 檀君을 숭상하는 玉山宮까지 만들어 놓고 매년 추석(8월 15일)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오늘이 오늘이소서」을 부르며 향수를 달래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616년 마침 鹿兒島에 억류되어 있던 琉球王國의 王世子 尙豊이 苗代川의 朝鮮人 陶工들이 구워내던 시로사쓰마(白薩摩)를 보고 감탄하여 島津義弘에게 朝鮮人 陶工을 琉球로 초빙 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그들과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張獻功과 安一官·安三官등 3人을 1616년 琉球王國으로 초빙하여 간 것이었다.¹¹²

그러나 薩摩에 두고 온 친구가 그리워 安一官과 安三官은 薩摩로 되돌아 갔고 張獻功도 되돌아 가려했으나 尙豊王子의 만류로 琉球王國에 남게 되었다. 그는 眞牛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름도 琉球式인 仲地麗伸으로 고치고 尙豊王子로 부터 那覇 泉崎의 湧田에 집을 하사받았다. 그는 그 곳에 朝鮮式窯를 만들어 그곳 사람들에게 釉藥바르는 기술과 朝鮮式窯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1,200度 이상의 高溫에서 高品質의 朝鮮式 陶磁器인 上

109) 朝鮮 침략 1個月 뒤인 1592년 5월 18일 豊臣秀吉은 조카인 秀次에게 朝鮮과 明을 정복하면 天皇을 北京으로 옮기게 하고 秀次는 明의 關白으로 삼고 日本의 帝位는 皇太子나 皇弟로 하여금 계승케 하며 자신은 寧波府(오늘날의 上海 부근)에 거주하면서 先鋒의 諸將을 시켜 天竺(인도)까지 정복시키겠다고 호언하였다. (岡本良知, 1963. 『豊臣秀吉』 158.)

110) 倭亂때 朝鮮에서 끌려간 朝鮮人들은 자신들만의 集團村을 佐賀를 비롯하여 唐津·博多·熊本·鹿兒島·德島 등에 건설하였고 이들 촌락을 일본에서는 唐人町이라고 불렀다. (拙稿, 「한민족 혼 일본서 숨던 다」 『東亞日報』 1992年 7月 7日字.)

111) 司馬遼太郎, 1994. 『故郷忘れがたく候』 29.

112) 『先年朝鮮より被召渡留帳』; 1754-1792 『先年朝鮮より被召渡由來記』1598-1722, 『앞 책』 (주 12); 岡田喜一, 『앞 책』 (주16) 16.

燒를 만들도록 지도하였다. 이때부터 琉球王國에서는 上燒가 종래의 荒燒에 대신하여 琉球 陶磁器界의 主流를 이루게 됨으로써 琉球의 陶磁器界는 일대 산업혁명을 맞게 되었다. 張獻功은 자신을 초빙한 尙豊王에게 朝鮮式 陶磁器 기술을 배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墓까지 하사받았다. 이런 연유로 尙豊王은 그 앞을 지날때면 반드시 행차를 멈추고 그의 墓에 禮를 표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琉球王國의 陶磁器 발전에 공헌하던 張獻功은 비록 다른 나라인 琉球에서 살았지만 후손들에게 朝鮮人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朝鮮 이름을 갖을 것과 琉球式 이름의 첫자에는 朝鮮을 나타내는 「麗」字를 넣도록 하였는데 14代 崎間麗進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그의 遺志는 지켜지고 있다.

張獻功의 후손으로 家系를 이끌어간 次男 麗達은 父 獻功의 뒤를 이어 家業으로써 뿐만 아니라 琉球 陶磁器界를 이끌어 갔다. 그때문에 尙貞王은 同王 8년(1676) 4월 13일 麗達에게 浦添間切崎間의 名島를 하사 함으로써 이때부터 張獻功의 후손들은 崎間家라 불리우는 張氏門中の 大宗家가 되었으며 여기서 갈라져 나간 것이 宮平·渡口·佐佐·宮城·知花·喜屋武·伸地家 이다. 그 뿐만 아니라 三世(麗康), 四世(麗直)도 琉球王國의 陶磁器界를 이끌어 가자 尙敬王은 同王 18년(1730) 7월 6일 이를 가상히 여겨 추가로 新祿까지 하사하였다. 이어서 五世(麗保), 六世(麗許)도 陶磁器界를 이끌어 갔고 특히, 六世는 약관의 29세로 도자기 책임자(壹大工)가 되니 이를 가상히 여긴 尙穆王은 그가 43세 되던 해인 同王 14년(1765) 5월 21일 張獻功이라 琉球 陶磁器 産業을 발전시킨 공로로 마침내 士族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므로 張獻功 一家는 『張姓家譜』라고 불리우는 族譜(系圖)까지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七世(麗布)와 八世(麗輔)도 瓦奉行所筆者가 되어 琉球 陶磁器界를 이끌어 갔고 대대로 黃冠까지 받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九世(麗謀)도 黃冠까지 받고 家業을 계승하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陶磁器業만으로는 생계를 꾸려 갈 수 없게되니 1617년 琉球王國에서 張獻功이 陶磁器를 시작한 이래 250여 년만에 張氏門中の 陶脈은 끊어지고 말았다.

이보다 앞선 尙貞王 14년(1682) 琉球王國에서는 陶業政策上 14C에서 16C에 걸쳐 南方貿易이 성하면서 釉藥을 칠하지 않은 검은색의 荒燒(南蠻燒)를 생산하던 讀谷의 嘉納과 美里의 知花 및 首里의 寶口와 上燒를 생산하던 那覇 泉崎의 湧田의 窯들을 那覇의 壹屋에 모아 壹屋窯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壹屋의 동쪽에는 上燒의 陶工들을 모아 아가리누가마(東窯), 남쪽에는 荒燒의 陶工들을 모아 회누가마(南窯)를 만들었으므로 이때부터 琉球王國의 대표적인 陶磁器를 생산하는 곳으로 壹屋窯가 생기므로써 壹屋는 陶磁器의 본거지가 되었다.¹¹³⁾ 이 가마(窯)들은 하나같이 首里王府가 陶工들에게 하사하였기 때문에 「御拜領窯」라 불렸고 琉球處승에 의하여 沖繩縣이 생길때까지(1879) 琉球王室에서 관리하였다.(그후로는 개인소유가 되었다.) 그때문에 琉球王室에서 필요한 陶磁器는 모두 이곳에서 생산하게 되었

113) 『앞 책』(주 97) 368.

고 張獻功 一家는 이곳 壹屋에서 단순한 陶工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琉球王國의 陶磁器界를 이끌어 갔다.

이와 같이 張獻功이 琉球 陶磁器界에 끼친 공로가 컸기때문에 그가 떠난지 3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沖繩에서는 그를 陶祖로 흠모하고 있다. 그때문에 沖繩 3대 명절의 하나인 清明祭가 되면 張氏門中은 말할 것도 없고 沖繩의 모든 陶工들이 牧志에 있는 그의 묘소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는 「琉球王國의 陶祖 張獻功이 琉球에서 최초로 上燒를 생산함으로써 琉球 陶磁器界에 일대 산업혁명을 일으킨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沖繩人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350여 년전 南島 琉球에 뿌린 朝鮮式 陶磁器 기술은 全 沖繩人에 퍼져 현재 100여 개의窯에서 훌륭한 陶磁器가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陶磁器가 日本本土에 알려지게 된것은 1939년 柳宗悅이 日本民藝館 同人으로 沖繩를 방문 하면서부터 었다.

九世(麗謹) 이후 현재 14代인 崎間麗進에 이르기까지 張獻功의 후손들이 陶工의 脈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나 陶祖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沖繩의 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麗」字를 넣은 朝鮮式 이름을 지니면서 현재도 那覇市를 비롯한 沖繩 각지에서 쫓쫓하게 살아가고 있다.